일상생활에서 뭐든지 닥치는 대로 놓고 간다면 그대로 참선이다

☞ 19면에서 계속

은 몸입니다. 이 싹은 뿌리로 인해서 전체가 삽니다. 뿌리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지분이나 수분이나 철분 모두를 갖다 흡수해서 에너지를 올려보내게 돼 있습니다. 이건 자동적입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나온 이 몸 자체는 바로 공기력과 태양력을 흡수해서 또 밑으로 내려보내는 거죠. 즉 말하자면 우리 몸에 정맥과 동맥이 서로 돌아가면서 살고 있는 거와 같다 이겁니다.

그런데 관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자기 뿌리를 믿어서 '뿌리야, 너 요만큼 에너지를 흡수할 거를 이만큼 좀 흡수해서 올려보내 다오.' 하는 거나 진배없는 겁니다. 용도를 너무 잘 아니까 말입니다. 싹이 생각하는 거를 뿌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직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몸뚱이 하나가 턱 쓰러졌다 이런다면 그냥 발광을 합니다. 허허허. 침착하게 '네가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려! 살리는 것도 너, 죽이는 것도 너다. 죽을 때가 됐으면 애나 어른이나 다 죽는 거지마는, 죽게 하는 것도 너고 살게 하는 것도 너니까 네가 알아서 해!' 하고 그냥, 죽는 거를 두렵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모두가 한데 그냥, 그 빈손과 빈발이 그냥, 송두리째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죠. 그래야 온몸의 모든 의식들을 작용케 해서 낫게 할 텐데, 이거는 뭐, 금방 '아이고, 주인공!' 이랬다가 금방 '아이구, 이거 어떡하나?' 하고 저 누구 부르고 누구 찾고, 허, 이러다 보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마음이 있다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고. 만약 여러분한테 어떠한 문제가 생겼다면 변호사한테 가서 청하지 않고 일이 됩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잘못됨과 잘됨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대화를 나누지도 않고 일이 됩니까? 밥을 짓지 않고 생쌀로 놓아두면 그냥 밥이 됩니까? 쌀을 넣고 스위치를 올리지 않으면 그냥 밥통은 지키고만 있는 거죠, 그냥. 허허허. 그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는 건수가 와야 할 텐데 건수가 안 오니까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와 같습니다. 생각 없이 되는 일이 있습니까? 송장이 무슨 일을 합니까?

그런데 마음을 내기 이전의 선장은, 마음의 선장은 나쁘고 좋은 거를 너무 잘 알잖아요. 마음 내기 이전의 마음은 너무나 잘 알죠. 이걸 해서는 안 되고 이거는 해서 좋고, 이런 거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선장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장자라고 합니다. 그래 선장이 돼 가지고 그 모든 의식들을 한데 합쳐서, 항상 이렇게 포함해서 하나로 굴린다면, 주인공으로 하나로 굴린다면 그 자생 중생들이 전부 보살로서 화하고 지장으로, 약사로 화하고 지신으로, 용신으로 화하고 모두, 아주 일체 아니 되는 것 없이 화합니다. 화해서 바로, 어떠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그 속에 둘이 아니게 전자와 전자가 한데 합쳐지면 그대로 그냥 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응신이 된다 하는 것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부처님께서는 그 속에만 들어가면 그 모습으로 화한다는 거죠. 돼지 속에 들어가면 돼지가 되고, 사람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되고, 곤충 속에 들어가면 곤충이 되고 하기 때문에 아니 되는 게 없다. 그러니 나 아님이 없다. "어떤 거 될 때에 나라고 할 수 없으니 부처니라." 이런 겁니다.

이 마음은 무한이에요. 지금 과학자들이 말할 때는 그것이 원자에서 입자로 인해서 소립자도 되고, 분자도 되고, 원자로 다시 되고,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한다 이런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지금 시쳇말로 용어를 변경해서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그러니 될 수 있으면 마음을 잘 쓰십시오. '나는 그냥 중생이어서 모자라니까 내가 힘이 없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우주와 직결돼 있고 가설이 돼 있고 용도에 따라서 끌어 쓸 수 있는 자원이 나한테 모두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지수화풍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든 끌어 쓸 수가 있는 에너지가 주어져 있다 이겁니다.

지수화풍이 없으면 에너지를 방출시킬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허나 내가 지수화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수화풍을 먹고 살고, 모든 게 지수화풍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수화풍으로 살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모두 주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체 만물만생이 그냥 자동적으로 통신이 되고 뜻으로다 통신이 돼서 만물이 전부, 개개인이 짹짹짹짹만 해도 요건 무슨 소리구나 하고서 전부 따라옵니다. 모이자 하면 모이고 흩어지자 하면 흩어지고, 먹을 것이 저기 있으니 가자 하면은 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한계가 따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우리가 제일 시급한 게 지금 마음을 그렇게 넓게 쓰면서 그 넓게 쓰는 마음도…, 내가 항상 여러분한테 말하죠. 나쁜 게 들어왔을 때는 '나쁜 게 들어오게 한 것도 너니까 좋게 들어오게 하는 것도 너다.' 하고 거기 놓아라. 또 잘돼서 들어오는 건 '아, 참 감사하구나.' 하는 거를 느끼면서 거기 놓아라. 그래야 컴퓨터에 앞서 입력된 게 없어지면서 새로이 자꾸 나온다 하고 말입니다.

나를 이끌어가지고 가는 것도 너고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 하게 하는 것도 너니까
그 속에서 나오는 거 그 속에다
닥쳐오는 대로 놓는 것이 관하는 것입니다.

참선을 하다 환상이 보이는데

질문 참선을 한다고 앉아 있다 보면 가끔씩 어떤 환상이 보이기도 하는데 그럴 때도 그냥 놓고 가면 되는 것이지요?

답변 무엇이 보이든지, 어떠한 물체가 보이든지 그것은 다 제자리에다 되놔야 됩니다. 당신 자체가 그것이 왜 그런지를 모르니까 거기다 되놓고, 그 원리가 어디서 어떻게 해서 왔는지 그것을 침착하게 실험해야 됩니다. 그것이 곧 참선입니다. 어떤 게 나오든지, 부처를 보든지, 중생을 보든지, 미치광이를 보든지 모든 것을 제자리에다 놓으십시오.

일상생활에서 닥치는 대로 뭐든지 그대로 놓고 간다면 그대로 참선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참선 아님이 없어요. 꿈이 생시며 생시가 꿈이면서, 온갖 생활하는 자체가 그대로 잡념이자 그대로 참선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어느 절에서 동짓날 팥죽을 쑤는데, 팥죽이 부글부글 끓어서 팥죽 방울이 올라오니까 주걱으로 젓다가 말고, "요것도 문수 저것도 문수! 요것도 문수 요것도 문수!" 하고 쳤더랍니다. 그런데 그 '문수'라고 한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걱으로 팥죽 솥의 팥죽 방울을 쳤다고만 생각하지,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이것도 주인공에서, 저것도 주인공에서, 요것도 주인공에서' 하고 놓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 팥죽 솥에서 주걱으로 그렇게 쳤다는 것은, 즉 팥죽 솥은 자기 몸뚱이요, 그 팥죽이 끓어 방울방울 나오는 거는 속에 들어 있는 수십억의 의식들인데 그것을 놓는다는 뜻이죠.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즉 말하자면 악업이든 선업이든 자기가 짓고 자기가 융합이 돼서 나온 거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를 달리 보면 안 되거든요. 환상으로 보이거나, 원으로 보이거나, 부처로 보이거나, 미인으로 보이거나, 목신으로 보이거나, 무정물로 보이거나 어떠한 걸로 보이든지 다 한 팥죽 솥에서 방울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내 몸뚱이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제자리에다가 다시 놓는다면, 놓고 지켜보고 실험하고 체험한다면 그것이 진짜 참선이지요.

항상 말씀드리죠. 카세트테이프에 녹음됐던 거를 어떻게 해야 없앨 수 있는지를요. 녹음된 그 카세트테이프는 다시 녹음을 해야만이 앞서 넣은 녹음이 다 없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팥죽 그릇 얘기 했듯이 '내 몸뚱이가 팥죽 그릇이요, 그 속에서 악업 선업으로 인해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바로 그 팥죽 방울과 같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제자리에 되놓는다면 카세트테이프에 녹음된 것이 다 없어지듯 한다 이겁니다.

가족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질문 저는 남편과 자식에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남편은 나를 나무라고 자식들은 저 잘났다고 제 뜻대로만 하고 제 말엔 신경도 안 써요. 제가 잘못 살았나 봅니다. 기대는 만큼 서운함이 너무 커서 살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답변 우리가 부부지간에 살고 자식지간에 살아도 남의 자식보다 내 자식이 더 못한 것 같고, 그래서 화가 일어날 때도 있거니와, 남편에게 '아이그, 나는 평생 살아도 왜 남들처럼 이렇게 이렇게 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없어?' 하고 기대한다면 그것도 다 욕심입니다. 또 부인이 못마땅해서 남편이 생각하는 것도 욕심입니다. 사람이 만나서, 남남끼리 만나고 얼마나 살다가 그 모습을 벗으려고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기간을 가지고 온통 나쁘니 좋으니 이렇게 해야 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이 모두가 다 욕심입니다. 돈을 더 벌려고 하다가 잘못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돈을 더 벌려고 보증 서다가 잘못되는 사람이 많고, 돈 이자를 더 받으려고 하다가 본전도 못 추리는 사람이 많고, 이런 문제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지 못해서 병고도 생기거든요. 욕심으로 인해서 생기는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다스려서 거기 놔라 이겁니다.

이 모두가 여러분께서 이 세상을 살고 계시지 딴 분이 와서 이 세상을 살아 줍니까? 살아 드리는 게 없습니다. 대신 먹어 주는 사람도 없고 자고 똥 누고 아프고 죽고, 이러는 것도 대신해 주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이 가정에서 왜, '부처님을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모든 거를 자기한테다, 자기가 자기를 믿으라고 하는 그 이치를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름을 믿겠습니까, 형상을 믿겠습니까, 허공을 믿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부처님이라 할지라도, 산 부처님이 여기 계시다 할지라도 그 고깃덩어릴 믿을 수는 없습니다.

우선 이 작업부터 하셔야 됩니다. 지금 조그마한 거든 큰 거든 어떠한 문제가 나와서 내 앞에 착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 하더라도 속지 마시고 모든 거를 거기다 맡겨 놓고 지켜보시고 관찰하시고 체험하시고, 이렇게 해 보십시오. 모두를 거기다가 놓고, 모든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내는 것을 다 거기서만이 하는 거니까 거기서만이 해결할 수 있고 거기서만이 돌아가는 거니까요.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개정판



대행선사 법훈록 그냥 목조건이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르치신
대행스님 법음의 정수!

"실생활에서 자기 마음 관觀하는 것을 일러줘서 자기 나무가 자기 뿌리를 믿고 찾을 줄만 안다면 그것은 보배를 찾아주는 것이나 같습니다."

규 격 신국판 (154*200)
페이지 232쪽
출판사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정 가 15,000원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